

11·12

우리넷

www.uriseed.com

발행일: 2005. 12. 1. (월) 16호

2005 November/December VOL-16 발행인: 박경영 | 발행처: 우리넷 |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우467-872) |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Island poppy

테마가든 스케치-연재 ⑩

한국 조경의 새로운 테마 Grass Garden



한국의 전통 조경은 유입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 조경과도 구분된다.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존중과 자연을 품어 안는 정관연습이 우리의 전통 조경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 만들어진 작은 마당, 강가의 절벽위에 거슬러지 않게 지어진 정자, 그리고 조선시대 궁궐안으로 들어와 앉은 낮은 산과 연못이 그 특성을 잘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전통조경을 고집하기에는 건물의 형태나 시대적 요구가 바뀌었다. 현대의 건물과 재료를 이용한 건축물에 알맞은 조경의 테마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식물적 소재를 다루는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식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소나무, 대나무, 자작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은 지금이 우리 소비자가 선호하는 나무이다. 그렇다면 조경을 지피식물이 경우에는 어떤가? 별개미취, 구절초, 억새, 배롱나무, 꽃잔디, 사사,

담쟁이 등등이 우리 소비자와 우호적인 식물소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의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빠르게 고급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보는 우호적 식물군도 점차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예측하건대 그라스류가 그 대표적인 식물소재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는 그라스류를 조경에 이용하기 위한 적을 방법을 일반적인 지피식물과는 좀 구별된다는 것도 이 그라스 조경을 하나의 테마로 설정해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라스 종류로는 억새, 물억새, 사사, 수조끼, 띠, 갈대 등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조경관련 식물소재를 다루고 있는 서점에 둘러보면 그라스를 주제로 한 책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물론 이런 책들 속에 나오는 식물들 모두가 국내 존재하는 식물군들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그라스의 대부분의 느낌은 고급스럽다는 것이다. 전통의 정원이 되었던 현대적 공간 건축물이 되었건 간에 요란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 그라스가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히 고급스럽고 흥분되는 경관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그라스를 이용한 경관연습에 있어 문제점 혹은 특성이 있다 한다면 이들은 화려하지 않아 잘못 이용하면 그냥 잡풀에 지나지 않는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라스를 이용한 조경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두고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선 통일감을 줄 것. 그라스 10종을 가지고 테마를 적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통일과 시너지가 있다 한다는 것이다. 억새가 있는 군락은 뒤쪽으로 배치하고 또한 수크림이 있



홍피는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한 소재로 좋다.

실제로 한국의 그라스 경관용 대표적인 것이 민들레의 대단 위 억새군락이다. 그리고 삼양동의 하늘공원이나 춘천골프장의 대단 위 억새 군락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그라스를 이용한 조경은 시기에 불과하고 그 식물적 다양한 소재도 이제 막 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3-5년내에 한국 조경을 지피식물의 이해는 그라스류를 이해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질 정도로 그라스의 가치 폭발적인 인기를 예상한다. 그 때를 미리 여행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길이 아닐까? ☺



사계절 잎이 갈색을 띠는 갈사초

contents

- 2005년도 우리넷은... 2~3면
- 수종, 수변식물의 물바른 이해 5면
- 한빛리뷰를 통해 7.5.9면
- 조경지재용배론선학 11면
- 히어로 기르는 우리애생화 13면

- 대표적 조경식물군 8면
- Small Garden Project 6면
- 한빛리뷰 10면
- 지상층계 12면
- 특집 14~16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그라스 수크림



우리넷에는 대형그라스로 포인트식물로 제작이다

특집 2005년도 우리꽃은.....

숨가쁘게 달려온 200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꽃의
올 한 해를 뒤돌아본다. -편집자주-



충천C.C.



용인 우리랜드



고급주택장원

조경식재 전문회사 (주)웰빙라이프 설립

조경식재면허업체(용인 2005-18-0002)인 (주)웰빙라이프는 숙근지피식물의 전문식재팀으로서 충천C.C., 용인 우리랜드, 강원랜드 골프장, 서울대학교 총장공관, 한일C.C., 금호아파트, 극동정보대학교, 김해 연지공원, 가야C.C 등 다양한 각종 현장에서 혼합식재, 락가든 등의 시공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동행파인테크C.C.



김천랜드 골프장

지사 설립

기존의 광주, 전남지사를 비롯하여 새로이 강원도에 5,000평 규모의 부산, 경남지사와 파천 강원도에 서울지사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갔으며 또한 순환근무제 도입으로 각 직원 업무에 서로 바꾸어 맡음으로써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소조경 완성

작년 늦가을부터 시작되었던 연구소 조경을 올 봄에 완성되었다. 락가든과 혼합식재 화단, 계류가 있는 소인못 등 다양한 형식의 조경공간을 조성하였고 완전히 자리를 잡은 6월이후부터는 다양한 식물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며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우리꽃 연구소를 방문하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배턴의 조경을 감상할 수 있다.



2005년 본격 출시 신제품 크기

숙근코스모스, 가우라, 숙근해성천안국 등이 올해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꽃이 매우 향이 강기게화종인 품종들로 혼합식재 또는 도로변 등의 단일식재 등에 많이 이용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내년엔 첫선보이는 상록잔디패킹이 또한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숙근코스모스



숙근해성천안국



숙근해성천안국



가우라



가우라

우리법면 3호,4호 녹화시스템의 표준으로

우리꽃에서 개발한 우리법면시리즈가 올해에도 폭발적인 인기속에 많은 현장에 사용되었다. 직접 시공한 이포C.C., 뉴스프링클C.C., 강원랜드, 춘천C.C., 태명C.C., 우리랜드, 중부C.C.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골고루 판매됨으로써 이제 넓은 면적의 녹화시스템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파종후 1년만 지나고 나면 유사제품과의 확연한 차이가 나기때문에 2005년도 더더욱 우리법면시리즈의 효과를 알 수 있게 한 해였다.



본격적인 조경자재 판매

그동안 준비해왔던 조경자재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지피식물식재 전문부직포 G커버, 토양 피복용 확산식 그린커버, 연못용 방수자재 EPDM라 아니, 청강습습제 잔디크리니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린커버



식재전에 G커버 설치

'제2회' 우리조경인상

우리꽃에서 보급한 우량의 소재를 현장에 잘 적용하여 한 차원 높은 경관연출을 가능하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조경인상이 올해로 2회를 맞았다. 올해 수상자로는 동행파인테크C.C., 배여크리크C.C., (주)수프로, 스카이벨리C.C., 아도니스C.C., 태안군청으로 선정되었으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연수를 다녀왔다. 우리조경인상은 그림자에 맞게 계속적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여 좋은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넷' 증면 및 격월간으로

조경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담아 매달 발송되었던 '우리넷'이 기존 6면에서 16면으로 증면되었고 월간에서 격월간으로 바뀌었다. 증면을 통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더욱 더 다양하게하여 수종수변식물, 그라스, 무늬초, 토종허브, 조경자재 등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담아냄으로써 조경관련자들에게 좀더 유익한 정보로 다가갈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내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조경 및 지피식물의 가이드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이다.



국제 화훼산업전시회(International hortifair) 참가

2005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한 국제화훼산업전시회에 참가하였다. 4일간 5만 여명의 방문객들을 맞이 이 전시회에서 우리꽃은 식물상품, 신조경자재 퍼블, 그리고 도자기상품 등을 선보였으며, 현지 일반인들과 세계 각국의 상인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대표적 조경식물군(Genus)

으로 본 분류학적 의미와 품종의 이해-④

Papaver속

앙귀비라고 일반적으로 앙귀비 또는 Poppy라고 불리는데 세계적으로 일년생, 이년생, 다년생 등 약 70여종이 있으며 유럽, 아시아, 남아프리카, 북아메리카, 호주 그리고 북극지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된다. 대부분 햇빛을 매우 좋아하며 척박지에서도 잘자라며 특히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 꽃은 오래가지 않지만 매우 화려하고 선명한 색상의 아름다운 꽃이 피며 꽃이 지고 난 뒤에도 추추통 모양의 열매통이 마치 장식물처럼 달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앙귀비가 꽃의 이미지보다는 마약으로 인식되어서 관상용으로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다. 가 근래에 들어서 조금씩 조경용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실제로 식물원에서 알칼로이드를 만드는 것은 약용으로 이용되어 재배가 금지되어 있는데 Papaver somniferum과 Papaver setigerum 2종이 법적으로 재배가 금지되어 있다.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계통 및 품종은 Papaver oriental, Papaver rhoeas, Papaver nudicale 등이 있으며 이들은 세계적으로 화단용, 절화, 분화용으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Papaver rhoeas

일반적으로 개앙귀비라고 불리는 두해살이풀로 꽃은 여러송이가 있는데 적색, 흰색, 분홍색 꽃이 가지 끝에 1개씩 달리며 5월경에 핀다. 꽃이 피기 전에는 밑을 향하지만 필 때는 위쪽을 향한다. 유럽이 원산지이며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데 서양에서는 보리밭에 자생하므로 풍작의 여신 케레스에 비유하고 중국에서는 우미인초(虞美人)라고도 한다. 한국에는 16세기 전후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혼합종인 우리범면4호에 이 품종이 섞여 있으며 작년에 한창 매스꽃에서 오르내렸던 양재천 주변에 피어 있던 앙귀비도 바로 이 품종이다. 양재천 일부 구간에서 우리범면4호가 시공되었고 그 곳에서 Papaver rhoeas 품종이 다른꽃과 어울려 흐드러지게 피어난 것이다. 해당 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의뢰까지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마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종자프로젝트 코너에서 언급했듯이 대면적 지역축제의 봄 경관연출을 위한 월년초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소재이다.



Papaver rhoeas-모든 비보꽃밭

Papaver oriental

매우 인기있는 숙근초 앙귀비로 많은 품종이 존재하며 Oriental poppy로 불리기도 한다. 꽃과 잎이 크며 식물전체에 털이 많으며 늦 봄을 전한 색상의 꽃들로 생김새가 예쁘다. 진녹색의 거친 잎들은 가시가 많고 거칠어 보이지만 외양과 달리 약하여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휴면에 들어가게 된다. 가장 흔한 색상은 붉은색이지만 분홍색, 주황색 등 품종별로 색상이 매우 다양하다. 우리꽃에서 판매했던 숙근범면도 바로 이 oriental poppy 품종으로 내년 봄에는 2종종이 더 새롭게 출시되어 질 예정이다.



Oriental poppy

Papaver nudicale

봄 일찍 비교적 다분종에 비해 오랫동안 개화하는 종으로 마찬가지로 많은 품종이 존재한다. 꽃과 잎은 크기가 아담하며 Iceland poppy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서늘한 기후를 좋아한다. 보통 혼합색상으로 꽃 자체가 단순하면서 클래식한 느낌-특히 바람에 하늘거리는 꽃잎은 매우 서정적인 공간을 연출-을 주기에 알맞은 정원 및 라깅든 등에 적용하면 봄을 화사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꽃에서는 내년 봄 2품종 출시예정이다.



Iceland poppy

육상,암석 가든용 식물 연재-④

양중맛은 꽃과 겨울상록의 푸르른 잎

‘비단너도부추’



우리나라에서 너도부추는 흔히 분화용 시장에서 널리 유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Anemone속으로서 실제로 Anemone속의 식물들은 품종이 다양하고 세계적으로 라깅든용식물로 유망하게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종은 그중에서도 키가 작은 비단너도부추(Anemone maritima)이다. 비단너도부추는 늦봄에서 여름에 걸쳐 진분홍색 또는 흰색꽃을 피우는데 술 일같은 일출에서 꽃대가 여러 개 올라와 양중맛은 동그란 꽃을 피운다. 꽃이 지고 난 뒤에도 조밀하면서도 보드라운 느낌을 주는 푸르른 잎이 매우 좋다. 라깅든의 양쪽에 2-3개씩 모아 심거나 돌틈에 심으면 큰 식물들과 잘 어울리는 화분을 이루어내고 육상조경시에도 양쪽 식물로 배치하여 심으면 좋다. 잎은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하여 유카를 비롯한 상록성 식물들과 더불어 겨울 라깅든의 한 자리를 장식해준다. 번식은 종자와 분주를 통해서 하는데 분주는 봄, 가을로 식물체의 결을 따라 나누어서 트레이에 혹은 포트에 적상하면 된다.



겨울에도 잎은 상록으로 푸르름을 유지한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지피식물들이 조경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활발히 이용되는 다양한 지피식물들을 식물군(Genus)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과 품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수중,수변식물의 올바른 이해

연재⑩

화려하지않은 고급스러운 날개 “청나래고사리”



청나래고사리(Mattuccia struthiopteris)는 국내 양치식물 중 관종과 함께 조경용으로 대표되는 식물이다. 전체가 연록색의 날개모양으로 자라나와 여름의 강한 더위가 지나면서 멋스런 자연을 뽐내는 좋은 소재이다. 대체로 고사리 종류가 그러하듯 반음지에서 생육하지만 이 청나래고사리는 물 가장자리에 자리

를 잡는다. 물론 숲 속의 습기가 많은 계곡주변이나 약간의 직사광선이 있는 하천상류의 암석주변 및 퇴적층이 발달한 비옥한 토양에서 매우 흥미 있는 자태를 뽐내는 식물이다.

면이파의 식물로 키는 80cm까지 자라는 데 생육이 좋은 경우 1m까지도 자란다. 평의 꼬리깃털을 닮은 잎이 약 12개 이상 모여 나는데 뿌리줄기의 끝은 주먹모양의 구를 형성하고 큰 것은 직경이 10cm를 넘는다. 일반적인 고사리과와 식물은 포자낭이 일렬로 붙는 데 반해 청나래고사리는 포자낭이 일과하는 구분되어 가늘게 나오는데 일과다 짧은 약 30cm 정도로 모여난다. 가을 서리가 내리면 잎은 땅위로 쓰러지지만 이 포자낭은 꽃잎이 서 이듬해까지 마른 줄기를 세운다.

조경에의 이용은 80%까지 차광이 되어도 생육에는 별문제가 없으므로 근식하면 음지식물로는 단연 돋보일 수 있다. 특히 습기를 좋아하므로 자연형 연못이나 계류의 돌틈 혹은 조경수 아래 배치하면 돋보인다. 차광정도가 20%정도 되어도 생육에는 큰 문제가 없고 여름의 직사광선만 피할 수 있으면 양지쪽에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어떤 지역을 선택하여 심더라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옥한 토양이어야 생육이 좋고 특히 습기가 보존이 되는 지역이면 더욱 좋다.

최근 아파트의 조경에 자연형 연못과 계류공사가 많고 이들

은 대부분 아파트 숲으로 인한 햇빛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양중맛좋은 식물이다. 우리가 북유럽의 식물원이나 공원의 아름다운 연못가의 고사리종류를 아담하게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 청나래고사리 이거나 비슷한 면이파의 식물이다.

근식하면 음지식물로는 단연 돋보일 수 있고 특히 습기를 좋아하므로 자연형 연못이나 계류의 돌틈 혹은 조경수 아래 배치하면 돋보인다.



포트에서 색색이 물러오는 모습

연재④

화본과 사초과 식물로 대표되는

Grass Scapes

가을이 아니라도 고급스러운 역새

그린라이트

우리는 연재부터인가 역새를 조경에 대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아니 아마도 국내에서 생산되고있는 조경용지피식물 중 재배량으로 따지면 순위에 드는 품목이 역새와 물억새일 것이다. 물론 최근들어 생태환경, 청정성, 삼양동의 하늘공원 그리고 많은 골조강원장이 생기면서 대단위 군락을 조성하는 식물 군 중 하나가 역새를 이용한 가을 테마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제대로 육성되어져나 선택된 좋은 우량의 역새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역새는 산지, 사발에 지천이 늘려 있고 최근에 종자파종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아주 흔한 지피식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을이 되기전에 전에 쓰러지고, 포기할 형성하더라도 엉성하거나, 조밀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가을꽃을 보고 초겨울의 넓은 경관을 보기에 적합한 식물이다.



이다. “그린라이트”는 일반 역새에 비하여 키가 약 1.5m 정도로 작아 군락을 형성한 한니만 다른 식물과 함께 심어도 주변과 아주 잘어울린다.

큰 군락을 형성시킬 때는 3치포트를 이용하여 m당 16-20본정도면 빠른 군락 조성이 가능하고 만약 생활터리를 조성할 때는 7-10본(6치포트)을 두줄로 이곳저곳 약 40-50cm간격으로 식재하면 첫째에 아름답고 손을 불필요가 없는 생활터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긴보행로에 식재할 경우는 15-20본(7치포트) 포기들 1m당 한포기씩 식재하면 특이하고 아름다운 보행로를 연출할 수 있다.

생육은 강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으며 일반 역새의 관리방법을 따르면 된다. “그린라이트”는 매우 조밀하고 잎의 선이 아름다워 일반적인 개념의 역새와는 확연히 구분되어서 시원하면서도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새로운 역새조경군으로 적용해 보

그린라이트(Miscanthus sinensis 'Green Light')는 이런 역새의 장단점을 잘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른 봄부터 여름을 거쳐 가을꽃이 피지 않아도 매우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역새 특유의 절감을 연출할 수 있는 품종이다.

우선 잎이 아주 가늘고 조밀하다. 또한 포기를 이루는 분얼이 매우 조밀하고 왕성해 포기하나하나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우리꽃이 기존의 품종 중에서 잎모양상, 조밀성, 포기균일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선발육성된 품종으로 가히 일품이다. 이 “그린라이트”는 군락으로 심어도 종지만 정원의 포인트 식물이나 작은 그라스 화단을 만들거나 긴 보행로의 생활터리용으로도 또는 군데 군데 큰포기를 주어 안정된 고급스러운 화려함을 연출하기에도 좋은 식물



그린라이트 재배모양



보행로에 생활터리용으로 사용된 그린라이트

Small Garden Project - ④ 트렐리스를 이용한 정원의 공간창조

트렐리스(덩굴대)
보통 스크린은 파골라 또한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뜰의 가장자리에 수직으로 세워 고정하거나 보통의 펜스 기둥사이에 울타리처럼 시공하는 가든 설치물이다. 스크린은 펜스보다는 약간 경계선을 만드는 정원에 다른 꽃과 분리되지만 완전히 격리되어 있지는 않은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정원 넘어 경관을 보곤하고자 할 때 이상적이다. 트렐리스는 덩굴대를 말하는데 스크린처럼 그 자체로서 쓰거나 또는 덩굴식물들로 감아 올려서 보다 매력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늘진 공간
트렐리스와 스크린은 식물과 사람 모두에게 그늘진 공간을 만들어 내는 데에 완벽한 기능을 한다. 햇빛 아래에 앉아 있는 것도 기분 좋지만, 작은 그늘진 공간도 필요하다. 또한 어떤 식물들은 전혀 햇빛을 좋아하지 않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트렐리스는 벽이나 펜스에 부착하지 않고도, 햇빛을 어느 정도 여과하면서 스타일러한 경계를 창조한다.

그래서 정원에 자연적으로 그들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사람과 식물 모두를 위해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그늘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며, 햇빛을 어느 정도 여과하는 트렐리스와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식물의 지지
트렐리스와 여러 타입의 스크린은 정원에서 식물의 지지대 역할과 같이 많은 쓰임새를 가진다. 펜스의 뒷부분에 덮여 펜스의 높이를 늘려서 여름 들면 으리리와 같은 식물들 바닥에 기지 않고 펜스를 타게 만들거나 장식적인 아치 또는 기둥을 장식하도록 한다.

음식식물의 이해와 적용 연재④



리시마키아(Lysimachia nummularia)는 음지양 또는 수변지 등의 지피식물로 매우 유용한 소재이며 우리말로 는 좀가지풀이라고 부른다. 외국의 길드너들은 표면을 기는 식물종에서 최상의 식물종의 하나로 키우기를 즐기고 즐려한다.

노란색 꽃은 특히 초록색 잎에 매우 매해주는데 이러한 대조는 황금색잎을 자랑하는 황금리시마키아(Lysimachia nummularia 'Aurea')의 경우에는 덜하지만 밝은 황금색잎은 어떤 꽃보다 주위를 밝게 해주며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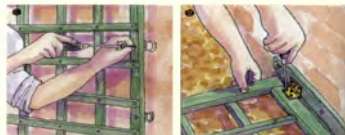


리시마키아의 푸른잎과 노란꽃

벽에 트렐리스 부착하기

DITY용 트렐리스 판넬은 벽에 쉽게 부착하도록 판넬에 드릴 구멍이 있다. 만약에 없다면 직접 드릴을 하면 된다. 벽에 판넬을 대고 손으로 잡은 뒤 수평을 맞춘다. 벽에 못을 고정할 자리에 표시를 한다. 트렐리스를 치우고 벽에 표시된 자리에 구멍을 낸 뒤 트렐리스를 자리잡고 못으로 고정시킨다. 트렐리스에 식물들을 감아 올릴 계획이라면 벽과 트렐리스 사이에 어느정도 공간을 만들어준다. 공간이 생기도록 하는 장치인 릴이나 작은 나무 널 조각 등을 판넬에 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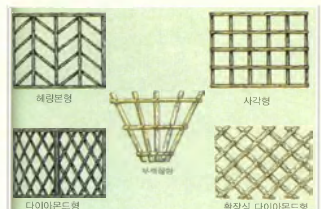
①트렐리스에 식물들을 감아 올릴 계획이라면 벽과 트렐리스 사이에 어느정도 공간을 만들어준다. 공간이 생기도록 하는 장치인 릴이나 작은 나무 널 조각 등을 판넬에 박는다.
②판넬 메인트칭이 된 벽에 트렐리스를 고정시키려면 경첩과 함께 판넬을 고정시키면 벽을 다시 칠하거나 할 때 트렐리스를 뒤로 쫓힐 수 있다. 두 개의 나무판을 수평으로 벽에 고정시키고 아래쪽은 경첩으로 고정하고 윗부분은 고리로 걸도록 하면 된다.



트렐리스 스타일

트렐리스는 보통 2.5~1.5cm의 좁은 나무판이나 플라스틱으로 격자식으로 되어 있다. 트렐리스 판넬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살 수 있지만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널조각(레이트조각)은 간단하게 서로 못으로 고정하고 그 바깥쪽에 프레임처리를 하면 된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판넬은 사각, 직사각, 프레임이 없는 화장식, 그리고 부채꼴 모양 등 다양한 종류와 사이즈가 있다. 고를때, 간단한 제형인지 확인해야 한다.



적합한 덩굴식물

스크린과 트렐리스에 쓰기에 적당한 덩굴식물들은 머루, 아리요, 인동류 등이 있다.



머루

아리요

인동

무늬만들

음지를 밝게 해주는 황금색파렛

황금리시마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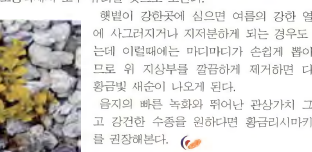
황금리시마키아는 일사야의 줄기마다 뿌리를 내리며 매우 강한게 지란다. 꽃들은 연매(일계드림)에 칸모양으로 지름이 2cm정도의 크기로 핀다. 잎은 원형으로 길게 뻗는 줄기에 매우 조밀하게 달리는데 황금색잎이 메트를 형성하면 마치 황금색카펫을 연상시킬정도로 조밀하고 음지를 밝게 해준다. 그들의 토양수분이 충분한 곳에서 잘자라는데 나무아래, 일 부 소관목과 큰 키의 속근초 주변에 심으면 좋고 계단이나 들머사이, 잔물 뒤편 그늘지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곳 주변을 채우면 좋다. 특히 연못과 개울주변에 단독 혹은 다수번식물들과 어울려 심으면 좋다. 특히 그늘진 수변의 들 주변에 카펫처럼, 무늬파먹이 등과 같이 혼식하면 매우 잘 어울린다.

반식은 마디마다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두세마디 잘라 포트에 적심하면 잘되고 뿌리가 활착되고나면 왕성하게 번리



나무아래 호스타 앞쪽으로 지면을 피복하고 있는 황금리시마키아

번여나가기 때문에 포트재배시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오히려 이 식물들은 매드형식으로 재배하는 것이 향후에 관리면이나 조경식재시 모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매복에 치지배한 잎을 제거해주면 바로 재순이 나온다.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그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답고 강렬한 붉은 잎



물속에 물도반도 노랑조랑과 조랑을 하얗게 하얀꽃 싹고 있는 홍띠

홍띠

- 1.봄과 여름에 잎 끝이 붉은 단풍처럼 물들어 있고 가을이 되면 더욱 붉어져 특이한 경관연출
- 2.연중 붉은색을 강조할 수 있으며 건강감과 함께 차별화된 조경 가능.
- 3.들꽃, 작은 언덕, 풍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나 테크주변 등에 잘 어울린다.
- 4.번식이 매우 빠르고 가뭄과 습해에도 강해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

잔디패랭이와 왕상록패랭이의 장점을 고루 갖춘 신품종

상록잔디패랭이

1.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2. 잔디패랭이보다 더 크고 화려한 꽃방식
3. 여름에도 짓무르지 않는 상록성의 잎은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4. 군식하거나 라인식물, 혼합식재시 알록식물, 옥상조경, 들꽃식재 등에 이용하면 좋다.



히트예감

속근사루비아(Salvia) 시리즈

- 1.생육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5품종의 속근사루비아
- 2.매년 교체할 필요없이 1회 식재로 OK
- 3.품종별로 화색, 크기, 꽃기 등이 서로 달라 구미에 맞게 혼용선택 가능
- 4.잔디, 도랑변, 식물원 등에 군식, 일식하거나 혼식식재시 사용하면 매우 좋다



전문성

비용

사후관리

(주)Wellbeing Life 가 야생화, 지피식물 조경식재의 새장을 열어드립니다.

조경식재연화 동인2005-18-0002

(주)Wellbeing Life

(주)Wellbeing Life 는 조경식재 전문회사로서 많은 재배 및 식재경험의 노하우로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조경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이기도 한 지피식재분야는 소재의 특성을 잘 알고 이론과 경험을 갖춘 (주)Wellbeing Life 가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야생화 종자,묘종,식재 한방에 OK!

(주)Wellbeing Life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상담문의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잎이 아름다운 키작은 초본
삼색조팝
가을의 단풍은 일품



- 황금색잎에 붉은빛을 띠는 세수와 가을단풍이 아름답다.
- 2.도모변,골프장,공원 등에 식재하면 좋다.

화색 분홍 화기 6~7월
원도 양지반음지

분류색의 고급 초본초재
후룩스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장가개화형



- 1.보라색의 아름다운 꽃이 연속개화.
- 2.타롱총과의 종식으로도 아름다운 경관연출

화색 보라 화기 6~10월
원도 양지

다화성의 키작은 초본
하늘유담
늦가을까지 보석같은 꽃을 피우는



- 1.일의 모양, 식물용, 화색, 화형이 모두 좋은 유담
- 2.일반 화단은 물론 옥상, 락가든에도 좋다.

화색 보라 화기 10~11월
원도 양지

잎이 큰 대형 아주가
왕아주가
질감이 좋고 비복력이 최상



- 1.일이 두껍고 광택이 있어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 2.일이 대형이라 식재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색 보라 화기 5~6월
원도 양지, 반음지

잎이 작고 조밀한 아주가
애기아주가
음지나 혹은 라인식물로 좋은



- 1.기온 아주가의 단견인 종식시 다른 식물로의 침범이 없다.
- 2.일이 좋아 라인식물로 이용해도 좋다.

화색 보라 화기 5~6월
원도 양지

정밀적인 여름화신
모나다
새로운 개념의 화단,도로용 지피식물



- 1.매우 정밀적인 화형만큼 신사
- 2.일의 향기가 뛰어나서 생육이 강건하다.

화색 빨간 화기 6~8월
원도 양지

화색이 보라색으로 아름다운
불가리스 알미꽃
봄을 알리는 새로운 할미꽃



- 1.생육이 좋은 화상의 봄꽃
- 2.분화음으로도 인기

화색 보라 화기 3~4월
원도 양지

가을적색의 상록단풍
왕상록패랭이 '카멜레온'
아름다운 꽃, 일의 절감 최고



- 1.가을의 적색 단풍이 아름다운 왕상록패랭이
- 2.라인을 형성하거나 겨울에 상록의 모양을 표현할때 유용하다.

화색 분홍 화기 5~6월
원도 양지

수중식물의 신소재
무늬창포
향기가 좋고 무늬가 좋은



- 1.무늬가 아름다운 연꽃종식시 포인트식물로 좋다.
- 2.생장이나 종식이 매우 빠르고 물의 정화능력도 뛰어나다.

화색 노랑 화기 5~6월
원도 양지, 수중

잎이 조밀하고 포기모양이 좋은
알기밀라
어디에나 적용가능한 고급조경용



- 1.화단을, 락가든, 라인식물로 어디에 사용해도 좋다.
- 2.스프레이형의 노년꽃은 정화음으로도 안정꽃을 뛰어나다.

화색 노랑 화기 5~6월
원도 양지, 반음지, 수변

화려함의 결정판
메카나 '매발톱'
봄의 화신, 화려함의 최상



- 1.꽃은 아름다운 매발톱으로 화색이 다양하다.
- 2.공원,골프장,전원주택 등 최상의 봄식물

화색 분홍 화기 4~5월
원도 양지

일의 무늬가 뛰어난
무늬금계초
생육이 강한 고급 정원용



- 1.키가 작은 무늬금계초
- 2.일의 무늬가 좋아 포인트식물로 좋다.

화색 노랑 화기 5~8월
원도 양지

무량의 황토초 복원
흰꽃꽃
화색이 깨끗한 토종의 아름다운



- 1.노랑색이 실린 흰색의 꽃잎은 매우 화려하다.
- 2.생육이 강해 수변지 및 어떤 장소에도 좋다.

화색 하얀 화기 5~6월
원도 양지

전혀 새로운 개념의 신소재
발레리안
음양지, 잔디를 구분하지 않는



- 1.꽃이 조밀하고 아름답다.
- 2.활엽수 아래는 물론 비취광개지에도 생육이 좋다.

화색 진분홍 화기 5~6월
원도 양지, 반음지

초본형의 다화성 꽃무리
스타치스
일과 꽃이 모두 좋은 소재



- 1.키가 작고 지엽의 골무라기 아름답다.
- 2.포식장상이 빠르고 많은 꽃대를 형성한다.

화색 보라 화기 7~8월
원도 양지

초본형의 아름다운 꼬리꽃
꼬리풀 '블루'
은은한 보라색 절경



- 1.꽃은 늦봄부터 여름까지 아름답게 수놓는다.
- 2.골프장,도모변,식물원 등에 군식,혼식시 이용하면 좋다.

화색 보라 화기 5~7월
원도 양지, 반음지

초본형의 키작은 꼬리꽃
꼬리풀 '이브'
자주 및 아름다운 여름꽃



- 1.화색이 선명하고 다화성이다.
- 2.골프장,공원,식물원 등에 혼식시 이용하면 좋다.

화색 보라 화기 6~8월
원도 양지, 반음지

상록성의 강한 새싹
블루솔세덤
상록의 블루색 진주



- 1.일의 길이가 최고
- 2.꽃은 노랑의 뿔뿔이

화색 노랑 화기 6~7월
원도 양지

잎이 매우 조밀한
애기세덤
생육이 강한 그린가넷



- 1.일의 모양이 좋고 여름에도 강한 새싹
- 2.육조경 및 진조지 녹화에 좋다.

화색 노랑 화기 6~7월
원도 양지

로제트형의 잎과 꽃이 모두 좋은
큰꽃장대나물
상록의 새로운 락가든소재



- 1.이른봄 양생맞은 꽃을 신사
- 2.진조경 및 락가든용으로도 좋다.

화색 분홍 화기 4~5월
원도 양지

대형 포인티 식물
무늬역새
새로운 지피 조경소재



- 1.독립의 분류있는 조경가능
- 2.무늬가 선명하고 아름다운 대형용

화색 분홍 화기 9~11월
원도 양지

키가 작은 천성의 아름다운
속근왜성천인국
꽃이 아름답고 키가 작은 여름대표식물



- 1.꽃이 화려하고 개화기가 길다.
- 2.화색이 아름답고 강렬해 최상의 포인트식물

화색 빨간 화기 6~10월
원도 양지

이색적인 새로운 천인국
속근왜성천인국 '팡파레'
꽃잎이 나팔모양이며 키가 작은 식물



- 1.꽃이 이색적이고 개화기가 길다.
- 2.화색이 아름답고 생육이 강건하다.

화색 빨간 화기 6~10월
원도 양지

최고의 음맥, 지베움초재
눈붉은필레
일에서 아래로,빨강의 식물폭포



- 1.국내 팔팔레를 개량한 최상의 황토초종
- 2.자람이 빨라 음맥,암사면,올라라 녹화 1년이면 OK

화색 빨간 화기 5~6월
원도 양지, 반음지

시원하고 아름다운 여름의 귀족자
리아트리스
일과 꽃이 아름다운 장기 개화형



- 1.개화가 길고 초형이 아름다운 신조경식물
- 2.지엽의 꽃무리는 여름의 귀족자

화색 보라 화기 8~9월
원도 양지

동자꽃의 새이름
비단동자
전조에도 강한 화려한 동자



- 1.일반동자꽃에 비해 생육이 매우 강하다.
- 2.양지,진조지 강해 관리가 쉽고 화려하다.

화색 진분홍 화기 5~6월
원도 양지

나비들이 황홀한 잔치
빨강가우라
어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



- 1.아름다운 꽃은 남은 나비를 연상
- 2.생육이 강해 어디에 적용해도 잘 자란

화색 빨간 화기 6~10월
원도 양지

아름다운 초화형 가진
역새 '모닝라이트'
고급무늬역새



- 1.한절되고 고급스런 분위기 연출
- 2.군식,연식하거나 포인트 식물로 이용하면 좋다.

화색 갈색 화기 10~11월
원도 양지

일의 절간이 짧고 노랑이 좋은
에버그린아이비
음지의 새로운 대안



- 1.일이 아주 조밀하게 자라며 광택이 좋다.
- 2.수원화 피복을 비롯하여 실내조경에도 유리

화색 분홍 화기 6~10월
원도 양지, 반음지

화색이 강렬한 동문
툼풀 '비단'
화려한 이미지 연출



- 1.화기가 길고 생육이 강하다.
- 2.빨강색의 꽃은 매우 화려하다.

화색 빨간 화기 6~10월
원도 양지

분부터 가을까지 꽃발결
속근코스모스
조밀하고 아름다운 키작은 꽃방식



- 1.5월부터 10월까지 연속개화
- 2.다양한 화색의 새로운 지피소재

화색 분홍 화기 5~10월
원도 양지, 반음지

상록의 황금색 절경
브라이트에이지
고급스러운 조경연출



- 1.전혀 새로운 색조조경가능
- 2.황금색의 무늬, 절감에 따라 독립으로도 일호

화색 하얀 화기 6~7월
원도 양지

실트래같은 수변의 무늬초
해변무늬실사초
진·습지 등 어디에서나 생육이 가능한



- 1.일의 형태나 절감이 매우 뛰어나다.
- 2.생육이 강건하고 연꽃과 인공계곡 등에 이용하면 좋다.

화색 무늬초 화기 10~11월
원도 양지, 반음지, 수변

전혀 새로운 개념의 범부채
유색범부채
강한 일과 다양한 화색의 조화



- 1.화색이 다양하여 화려하면서도 색다른 느낌을 준다.
- 2.부채상 같은 일모양은 시원한 느낌을 준다.

화색 혼합 화기 7~8월
원도 양지

꽃이 크고 다화성인 진분홍
꽃잔디 '레드킹'
어름하고 현상 무, 절간이 짧은 강자



- 1.화색이 선명하고 꽃이 크다.
- 2.여름절에도 진한 녹색으로 줄기바람생성이 없다.

화색 진분홍 화기 4~5월
원도 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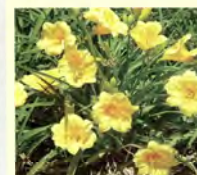
이색적인 꽃잔지
니포피아
내한성이 강한 볼품



- 1.이색적인 볼품은 많은 자람들의 시선 주목
- 2.골프장 티하우스 주변에 적용하면 일품

화색 혼합 화기 6~7월
원도 양지

분부터 가을까지
스텔라원추리
키가 작은 최상의 연중 개화종



- 1.꽃이 핏스하고 화수가 많다.
- 2.꽃이 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화색 노랑 화기 5~10월
원도 양지,반음지,수변

분,범부채끼리 볼려도 좋다.
구름꽃과 봄비
다양한 화색의 꽃무리



- 1.봄에 피는 아름다운 국화
- 2.진조경에도 강한 최고의 화단식물

화색 보라 화기 4~5월
원도 양지

강렬한 빨간색 초롱초
초롱꽃 체리벨
고급스러운 이미지 연출



- 1.다화성의 꽃은 매우 아름답고 많스니다.
- 2.빨강색의 꽃은 다른 식물들과 잘 어울린다.

화색 진분홍 화기 6~7월
원도 양지, 반음지

꽃이 크고 생육이 강한
제비꽃
습지의 아름다운 꽃



- 1.꽃과 잎이 크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 2.수원 및 달은 물속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화색 보라 화기 5~6월
원도 양지

지상
중계

이천연구소

1만3천평의 생산·연구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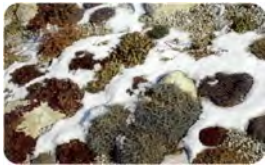
예년보다 한발짝 앞서는 감추기 몸 움직리게 만든다. 거기에 매서운 바람까지 마지막 남은 일새를 한층의 재치된 사그리뜨린다. 이제 대부분 식물들의 지상부는 없어지고 황량하고 거친 땅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천연구소에는 그중에서도 한겨울의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적히 살아숨쉬는 곳. 라가들이 사무실 앞을 채우고 있다.

겨울, 상록의 활기

라가든조성시 겨울을 대비하여 상록의 식물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겨울에 대부분의 식물들이 잎이 지고 난뒤에도 지상부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역시, 평의비름 '만주', 수크림 등 잎이 갈변한 뒤에도 형태가 좋은 식물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 외 갈변한 식물들의 지상부를 모두 제거하고 나뭇잎이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보여준다. 라가든중앙부의 큰 조경석앞으로 개랑후루스에 내내 가려 있다가 겨울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뽀얀색을 뽐내는 유카, 무늬상 유카 '글렌우드', '브라이트웨이'가



12월 초의 라가든 모습



라가든의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하는 식물들



상록잔디매장이 포트재배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추위에 몸을 움크리고 있는 개랑잔디다. 각종 상록의 세련됨을 갈색 머리를 풀어헤쳐놓은 듯한 갈색초 등...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란기과. 이것들은 겨울의 황량함과 하얀눈을 새로이 바꾸어 주는 새로운 친구이자 새로운 소재의 한자리를 차지한다. 물론 봄, 여름, 가을과 갈을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겨울을 장식하는 그란기과와 상록의 소재들 그리고 그 완성체인 라가든을 직접 '우리꽃'에서 만나면 그 시공 현장에서 느껴보시기를...

상록잔디매장이 본격적인 생산기

새로운 만남은 늘 긴장되고 기대를 하게 만든다. 상록잔디매장이, 숙근재성원인 '광과래', 숙근사부미야, 울타인 '메드라이' 등이 내년을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시선을 모으는 이름은 상록잔디매장이. 수년간의 참고 끝에 태어난 브랜드로 현재 특허출원 준비중이고 뛰어난 꽃과 잎은 이미 잔디매장의 정점을 훌쩍 뛰어넘어 아마도 내년에는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지금은 묘장장에서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 한창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공현장들도 마지막 식재에 여념이 없다. 춘천C.C.는 울초 혼합식재와 라가든화단으로 고객들에게 큰호응을 얻어서 이번 겨울에 추가적으로 라가든을 6군데에 새로 조성하여 내년 봄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파리현장에도 라가든이 적용되기 시작하여 급료 미천동 어울림원 등지의 시공을 마쳤고 그 외에도 많은 현장에서 혼합식재와 라가든이 식재됨에 의해서 시공되어지고 있다.

철저한 월동준비

이천연구소에는 겨울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월동준비가 한창 마무리중이다. 특히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에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우며 준비중이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눈피해에 휩쓸려야하는데 철저한 계획속에 준비를 해놓는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 주변에 다른농장에서 피해를 볼때에도 '우리꽃'이 여러차례 한번도 눈이나 비에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그만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놓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했었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각 하우스마다 주변에 밧줄을 준비해놓는다. 어느정도 눈이 위험수위에 다다를 것 같으면 밧줄에 붙을 붙여 하우스를 옮겨다니며 그 열기로 눈이 아래로 내려가게 유도한다. 그러면 웬만한 눈이만 하우스사이드로 내려가게되며 최악의 상태에는 비닐을 벗어서라도 하우스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연장을 준비해 놓도록 한다. 그와



춘천C.C. 라가든 시공현장

면 갑작스런 눈에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것이다. 내년에도 좋은 제철을 생산하여 선보이기 위해 이천연구소는 힘차게 살아 숨쉬고 있다.



눈을 대비해 준비해 둔 밧줄

우리꽃 지사는...

서울지사
Tel : 02-502-0221
Fax : 02-502-0231

부산·경남지사
Tel : 055-253-3760
Fax : 055-253-3761

광주·전남지사
Tel : 061-352-9946
Fax : 061-352-9945

취미로 기르는 우리야생화-④

아름다운 연꽃을 닮았나
아니 장미꽃을 닮았나?

“바위솔”



바위솔(Orostachys japonicus)은 들나물과의 다육식물로 현재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종류로는 바위솔, 난쟁이바위솔, 풍근바위솔 등이 있으나 지역의 이름을 딴 지리바위솔, 한라바위솔, 월악바위솔과 같은 지역명이 붙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이들 대부분

은 동근바위솔, 혹은 바위솔의 근연종으로 보아 바위솔로 통일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에서 도입된 커미줄바위솔, 구슬바위솔, 푸른옥바위솔 등 다양한 종류들이 국적을 구분할 정도로 많은 종류가 길러지고 있다.

사실 이 바위솔은 국내에 흔치 않은 다육성 식물의 대격이다. 바위솔은 야생화를 취미로 기르는 사람에 있어 가장 인기있는 종류이기도 하지만 초보자들에 아주 쉽게 기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번식이 용이하고 풀관리 등과 비배관리 등이 매우 쉬운 특징도 가지고 있다.

바위솔은 꽃이 없어도 매우 아름답고 양동맛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소재이다.

번식은 심성 혹은 주로 이른 봄에 많은 작은 포기들 생장시키는 데 이 작은 개체를 파내서 심어도 잘 산다.

물론 이때 떨어진 새로운 개체의 뿌리가 없어도 된다. 인위적인 번식을 시킬 때는 일을 하나 하나 태어난 다음 반 그늘에서 7-10일 정도 말린 후 잘 씻은 마사흙에 꽂아두면 잘려진 잎의 잘려진 부위에서 뿌리와 새로운 개체가 생긴다.

바위솔이 재배가 쉽긴 하지만 주의할 점은 물을 많이 주는 것을 싫어 한다.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바위솔을 더 아름답게 키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다. 바위솔은 꽃이 피면 잎노릇기는 속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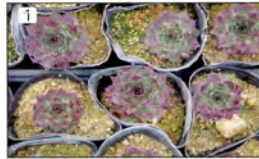
다양한 바위솔

된다. 따라서 꽃이 피기전 새끼를 잘 가꾸어 내년의 주인공으로 키우는 작업도 중요하다. 꽃은 주로 가을에 피는데 흡사 동물의 꼬리모양으로 흰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매우 미끄러운 파종시에는 흙을 덮지 않는 것도 주의한다.



가미줄 바위솔

푸른옥 바위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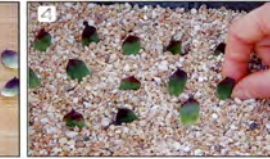
포트에 재배되어지고 있는 바위솔



잎을 하나 하나 떼어낸다.



반그늘에서 7-10일정도 말린다.



잘 씻은 마사흙에 꽂아두면 뿌리를 내린다.

토종허브를 찾아서

연재 ④

사랑을 찾아 백리를 나르는 「섬백리향」



전세계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특산식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기도 하지만 그 향과 잎, 꽃의 아름다움이 가히 최고이다.

섬백리향은 꿀풀과의 관목으로 바위솔이나 건초양지에서 흔히 자라며 보통 질벽 같은 곳에서 늘어지며 자란다. 계란모양의 새끼를 통 같은 작은 잎이 마주나고 약간 두껍고 광택이 난다. 마디는 조밀하여 매우 아름다운 포기를 이루고 겨울에도 상록으로 푸름을 자랑한다. 어린 순은 흡사 초봄을 닮았지만 해를 풀수록 푸른 줄기는 짙어지고 되고 두꺼워져 나뭇가지가 된다.

일반적으로 허브식물 중 타임이라는 종류가 백리향을 일컫는데 섬백리향은 일반 백리향보다 향이 진하고 잎과 꽃줄기 등이 두껍고 광택이 나므로 오히려 관상 가치가 더 뛰어나다.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타임보다도 더 상품성이 높고 또 기르기도 쉽다.

자생지가 울릉도의 섬 양지 해변 등에서 생육하는 식물인데 매우 취미로 기를 때는 이런 자생지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매우 기르기 쉬운 식물이다. 물 빠짐이 좋게 하고 너무 많은 물은 줄기의 마디를 너무 길게 하고 빨리 자라게 하여 관상 가치를 떨어뜨리므로 고형비료를 사용하지나 추위와 추위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대량생산업을 하려 한다면 토양에서 재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번식은 종자중이나 포기나누기 혹은 상목으로 하는 데 이중 가장 간편하고 쉽고 빠른 것이 삽목이다. 삽목은 어느 때나 잘피

는데 처음 자라는 녹색줄기가 약간 경화되는 줄기를 4-5미터를 기준으로 잘라 마사토나 혹은 피트모스 등에 꽂아 관리하면 약 2-3주만 되면 뿌리를 내린다. 다만 삽목시의 물이 많으면 줄기가 썩게 되므로 주의한다.

만약 조경에 이용할 경우는 라가든이나 혹은 양지의 사람들이 잘 다뤄나기 만질 수 있는 장소에 심으면 그 향과 잎 그리고 꽃이 활짝 피는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고 특히 들꽃에 심으면 들과 상록의 잎이 어우러지며 표현하는 경관은 매우 아름답다.

만약 줄기가 너무 자라 잘라줄 경우가 생기면 너무 강하게 자르면 새 싹을 내지 않고 죽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강하게 자르지 말아야 한다. 너무 길게 늘어져 보기가 흉하면 처단 줄기를 위로 올려 땅에 묻어두고 뿌리를 내리도록 반드시 강하게 천정하는 것이 좋다. 또 배수가 불량하거나 너무 음지의 경우는 생육이 되지 않고 여름철 녹아버리므로 주의한다.

섬백리향은 방부목 및 민간에서 해열, 기관지염, 하혈, 월열 등에 쓰인다.



우리꽃 찾아오시는길



- ①인근 IC - ②장호원방향 화회전(4.5km)
③이천 시내 - ④대월산거리 화회전(5km)
⑤이천 T자형삼거리 화회전(800m)
⑥남해화회전 - ⑦인근 및 화회전

- ⑧인근 IC - ⑨장호원방향
⑩이천 시내 - ⑪대월산거리 화회전(약10km)
⑫송곡주유소(우측) - ⑬남해화회전 - ⑭인근 및 화회전

- ⑮이천 시내 - ⑯국도이동시
⑰마리다로브 지나 직전(1km) - ⑱해사거리 우회전
⑲철성, 모기방향 우측으로 빠져
⑳마리다 아래로 화회전
㉑송곡주유소(우측) - ㉒남해화회전 - ㉓인근 및 화회전

특집

2005 네덜란드 국제 화훼산업전시회 참가가

(International hortifair)

우리꽃, 유럽을 두드리다



—편지자주—

“우리꽃”에서 현재 생산 판매중인 다양한 식물상품과 조경 자체등의 유럽시장 진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5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한 국제화훼산업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참가인원은 우리꽃 임직원을 비롯하여 총4명으로 그중 임직원 2명의 글을 쓴다.



수호탄에 정원을 네덜란드의 사립이름

열 시간 넘게 쉬 없이 날아온 비행기가 지친 듯 통제를 흔들어 스키를 공중에 내리얹었다. 선장을 승객처럼 착 한 것인지 가리키는 몸으로 산책에서 내리자 이국이라는 설렘과 함께 열흘간의 네덜란드 원정의 첫 네덜란드이라는 긴장감으로 잠은 끝이 났다.

밖으로 나오자 끝없이 펼쳐진 초원 가운데 자리 잡은 스킨골프장 네덜란드 물류 인프라의 중심축답게 세계 각국의 화물과 승객이 줄 가쁘게 오르내린다. 여류에게 승객들을 데려가는 세관원들의 느릿느릿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열흘간 열일하는 머무는 곳은 암스테르담에서 고독도로로 반시간 남짓 걸리는 리제(Lisse)의 작은 호텔이다. 커다란 회회와 깨끗한 도로, 너른 창안의 멋진 집 큰 사이로 보이는 아가자기하에 놓여진 꽃밭과 집 앞에 깔려있는 정돈된 한 평터의 정원이 있는 집들이 인상적인 이 조용한 시골마을은 류렌보르 공원으로 유명하다. 3월말에서 5월말까지 8주동안 이 공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꽃축제가 열린다는 이 두 달 동안 공원 입장료 수입만 100여 달란다고 한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꽃을 가꾸는 것, 구경하는 것, 선물하는 것, 선물 받는 것 모두를 좋아하고 즐긴다는데, 훌륭하게 가꾸어진 작은 정원들을 눈으로 보고 나니 그 말이 실감난다. 이 모든 걸 즐기는 시간은 오직 차 안에서만 허락되었다. 나머지 시간은 앞으로 일주일간 전시회를 위한 준비로 모두를 정신이 없다.

50여개국의 참가자들의 전시회준비

다름날, 곧 다가올 전시회가 열리는 암스테르담의 RAI 건물의 전시회장에서 우리 부스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온갖 색상의 꽃들과 향기로 넘쳐나는 그 곳에 불확실히 남아있는 한자리가 바로 그 곳이다. 네덜란드 현지인들은 일찍잡지 자리를 잡고 부스 인테리어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우리처럼 아시아나 다른 대륙에서 참가하는 경우는 전시회 준비 기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추가 비용을 들여 미리 전시회 준비를 시작하거나 전시회 주회 측에서 제공하는 스탠드설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스설치를 하고 있었다.

쇼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작업하는 사람들속에서 우리들도 곧 그들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리 준비해온 일목일초를 차 맞추는 데에도 하루가 꼬박 걸렸다. 바쁜 우리꽃이 조경적으로 개발한 퍼넬로 처리하고, 부스벽에는 일목 전시대에

펼쳐진 한국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한지와 선을 살린 폭포전으로 마음을 하였다. 6월 남짓한 시간 공간을 우리 것으로 온전히 만드는 데에는 꼬박 이틀 밤이 걸렸다. 쇼의 주인공을 돋보이게 할 작업은 이제 끝나고, 주인공이 등장만 남았다. 원광대학교 정통온 교수와 함께 준비한 도자사업과 우리꽃의 상품 가치를 확인할 차례만이 남은 것이다.

유럽시장의 문을 두드린 우리꽃의 상품들

전시 내용은 인테리어와 아토포본으로서 도자기화분, 화병, 조경석 퍼넬, 드래곤볼 그리고 관중, 할미꽃 등 우리꽃의 식물상품 등이다. 전시회 기간인 11월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우리꽃의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은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에서 이집트, 수단 등 검은 대륙까지 그야말로 다국적이었다. 상인의 국적에 따라 열대 지역에서 한대 지역까지 남다른 다양한 식물 종을 문의하였다. 특히 아시아 화사한 것을 알고 대부분 bambus와 그와 유사한 grass종류를 많이 찾았고, 수출 가능한 종자 종류를 문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해외의 품종 시장은 이미 방대하고, 많은 부분 개발이 끝난 저렴한 상재에서, 수입의 필요와 의존성을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전시회 기간 동안 이리도 같은 생각을 역으로 하게 되었다. 해외 시장은 이미 우리로 한해 열려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다



우리꽃 전시회 전경

시와, 우수한 식물 유전자원은 충분하고, “우리꽃”은 이를 세계 시장에 증명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식물상품 이외에도, 유럽의 생산 시스템을 하루 배리 도입하고, 연구자원을 늘려 우리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개발한 조경석 퍼넬에 대한 관심도 날랐다. 여러 원예상품 관련 회사들과 골프장 조경을 하고 있는 회사들



제품성능을 듣고있는 유망인물



전시부스 설치작업

들, 색상이 기능성에 대해 모두들 많은 관심을 보여 신상품의 첫 해외전시는 성공적이었다. 특히, 전시회 부스의 중앙부를 차지한 새로운 디자인의 화분과 화병 시리즈는 유럽인의 사랑을 받았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네덜란드는 창가에 꽃병이 놓여 있지 않을 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병이 많고, 디자인 또한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네덜란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적인 선이 살아있으면서 유럽의 감각을 도한 정통온 교수님의 새로운 디자인에 일반인들은 물론 현지자의 여러 가문 센터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름은 마무리

오랜 기간 준비했던 것에 비해, 짧게 끝나버린 전시회 기간이 아쉽기도 했지만, 전시회기간동안 부스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통해 세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었는지, 조금 더 철저한 준비에서 완벽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작은 것 하나 하나 신중하게 되어 있는 전시회의 모든 것이 놀라웠고, 또한 당황스러웠다. 모르는 것과 실수가 너무 많아 불평을 담당했던 TNT의 사무실에 있던 직원에게 하도 질문과 부탁을 많이 해대어 전시회가 끝날 때 즈음에는 해이기가 아슬아슬하게 지장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화려한 쇼가 만들어지는 과정들 지켜보고, 함께 하였던 이 시간 자체가 바로 이번 원정을 통해 내가 찾은 보물이 아니었다. 지나치게 화려하다 싶은 쇼의 이면에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철저하고 정직한 계산방식과 일관적인 일처리 방식, 기본적으로 3개 국어를 소화하는 그들의 언어교육,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던 그들의 원예사업에 대한 감탄과 뿌듯함으로, 부스 안에서 서서 숨이 막힐 때를 피워대는 자유분방한 사람들에 대한 머리통만한 마음으로도, 나름대로 준비해온 작전에 이국에 대한 조사 없이 훌쩍 출장을 나온 나의 준비의 미흡함 등등을 다스리한 뒤 되짚어 보며 쇼를 마무리한다.



우리꽃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각국의 방문객들

이번 출장의 주 목적은 세계원예기자협회참가이지만, 가문 센터를 수 개월간 조사해온 나에게는 다양한 가문 센터들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촉박한 전시회임으로 인해, 가문센터들 둘러볼 기회가 쉽게 나지는 않았지만, 그 와중에 방문했던 가문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Overvecht Overvecht

리에서 방문한 Overvecht는 전격 12개의 책임이 있는 중대형의 가문 센터로 5만 여개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실내 판매장에는 실내의 식물류와 화분용기, 각종관수장, 연꽃용품, 각종 가문 기구류, 예안용품 그리고, 각종 인테리어 장식소



매장안의 다양한 상품들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마스 상품들



가문센터의 내부매장전경

구류, 석재류 그리고, 실외 식물류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11월이 라서인지, 바깥으로 나가려는 문을 통해하고 자제 또한 그리 많지 않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 안은 사람들로 켈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북적였다. 아이들과 함께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들, 함께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고르는 엄마와 딸의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이벤트로 취급되는 우리의 문화와, 그들만의 전통으로 아끼는 그들의 문화와의 차이점을 또 한번 느꼈다.

가문 센터를 이리저리 둘러보는 중, 한 쪽 전에 놓여진 다양한 사이즈의 나막신들이 눈에 띄었다. 나막신? 네덜란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것이 바로 이 네덜란드의 특이한 나막신인데, 워낙 땅이 질퍽거리고 추워서 발을 따뜻하고 보습보습하게 유지하기 위해 농사지을 때 신었다고 한다. 이제는 나막신을 신지 않지만 한 해에 300만 켈레징도 팔리는 문화 관광 상품화시켰다. 대단하다.

Boskoopse Veiling Boskoopse veiling

또 다른 종류의 가문센터로는 Boskoopse Veiling이 있다. Boskoopse 지역에 위치한 이 가문센터는 사실 농장연합조합되는 것 같다. 400여개 농장들을 회장으로 가지며, 식물들을 공급, 특히 독일계 농장들의 상품을 네덜란드로 소개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조합인데, 지금은 유럽 전역까지 회원 농장들을 확장하고 있다. 특정한 종들과 조경용 수목 품종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많은 농장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Cash and Carry Center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만여명의 실외 공간과 1500평 정도의 실내공간을 갖추고, 조직원들이 매일 350여필지에는 포트식물들, 200여필지에는 분장원 나무종을 채워놓고 있다.

거의 모든 식물종들을 즉시 공급 가능하며, 현지의 공급가와 한 상품에 대한 품질을 바로 즉시 비교하는 역할도 한다. 눈에 띄는 특이점은 바코드로 일렉트로카!

라벨링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식물에 바코드가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대량의 식물들을 손님이 골라내고, 바코드를 스캔한 후에, 바로 상재한 내역의 영수증과 함께 식물들을 제공하며, 결제는 그 즉시 이루어진다. 2만여명의 대지에서 식물들을 고르러 다닐 때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일렉트로카를 타고 다니면 된다. 회원들이 증명되면, 바로 그 즉시 제공되는 데, 지의 뒷부분에 식물의 트레이를 실을 수 있는 카드가 달려 있어, 식물들을 골라 카드에 실으면, 바로 그 상태로 바코드로 식물들 식별 계산한 후에,

자신의 차로 옮겨 싣고 가면 된다. 센터의 인력과 계산 시간과 방법을 절약하는 편리한 이 방법도 회원들의 요청을 바로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 여러 개의 가문센터들은 시간상 간편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이번 일정은 차오도, 실제로 많은 그래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마다 많은 도움을 준 현지 유학생 지연이와 TNT사무실의 Nusha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가문센터에 실려온 화물



바코드가 부착된 라벨이 도입된 상품들



가문센터에서 제공되는 일렉트로카

여러분들의
자발적 구독요금
후원을 기다립니다.

지정된 계좌에 금액에 상관없이
구독/후원을 하시려면

연락처 : 235100-56-071562
예금주 : 박공평 (우리꽃 대표 및 소식지 발행인)
전화 : (031)634-7990 팩스 : (031)634-7991
(현재누적금액 : 91만원)

일과 꽃이 좋은 최고의 관목소재

『라인 혹은 독립으로도 최고!!』 삼색조팝



- 1.아름다운 일과 꽃이 잘 어울리는 조팝
- 2.봄에 황금색에 붉은빛을 띠는 새순과 여름에 분홍색의 아름다운 꽃,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게 최고의 관목소재로 각광을 받고있다.
- 3.공원, 도로변, 골포장 등에 화양곡이나 절곡 대용으로 활용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 4.생육이 강하고 번식력이 뛰어나다.

자연을 빛내는 자연



구입문의 031-634-7990



삼색조팝



삼색조팝의 다른 모습

2005년, 올 한 해에도 우리꽃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고객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큰 사랑으로 우리꽃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올해 우리꽃은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다양한 신품종을 개발, 선을 보여
고객 여러분들의 호평과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11월에는 네덜란드 호티페어에 참가하여 세계진출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연말을 기점으로 중국의 생산 법인 외에 새롭게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120만불의 영업법인을 설립하고 세계의 문을 두드리게 된 계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꽃은 야생화 전문 회사로 창사이래 종자, 모종,
그리고 조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객님들의 큰 신뢰와 사랑으로
국내 최고의 대표브랜드로 성장 했습니다.

특히 야생화 종자의 안정적 생산으로 대량보급을 가능하게 했고 조경용 고급야생화
지피식물의 개발과 적극적인 보급을 통한 국내 지피 조경시장의 고급화에 큰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지피식물 가이드 우리꽃을 발간, 보급하여
기술향상, 신품종의 적용 및 신개념 정립에 많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 또한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이룩된 하나의 금자탑입니다.
우리꽃은 앞으로는 세계최고의 숙근초 전문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 여러분들의 깊은 사랑과 관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무는 해,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 행복하고 즐거움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꽃은 고객 여러분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우리꽃 임직원 일동

가남면사무소 가림조경 가이랜드 강원랜드 건국조경 건인조경 경남도립정신병원 계명대학교 고려조경 고운식물원 고원엔지니어링 광명조경건설
교원대학교 국보조경 국제교육진흥원 그린이앤지 그린조경 그린힐C.C. 극동정보대학 금강조경 금슬개발 금잔디조경 금화물리
기장농업기술센터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김포C.C. 꽃과나무 남부C.C. 남서울C.C. 녹지원 뉴스프링클C.C. 뉴코리아C.C. 다산조경 단비조경
단성면사무소 단양C.C. 대구C.C. 대림원에 대림이앤지 대림종합건설 대신조경 대우조경 대일종합개발 대한심원 대한조경 덕운조경 덕평C.C.
도연조경 동산조경 동서조경 동양시멘트 동양파인크리커C.C. 동원건설 동희종합조경 두레조경 떼제배C.C. 돌과숲 렉스필드C.C. 리베라C.C.
리츠칼튼C.C. 무안동동사무소 미진서터건설 미림농원 백운종합건설 베어크리크C.C. 보은군청 보한산업 부곡하와이 부산농약중요
북제주농가센터 블루해런C.C. 비오이앤지 비전힐스C.C. 산내식물원 산림조경 산정원 삼덕조경 삼연조경 삼우화화 삼지조경산업 상명대학교
상명종합조경 상원건설 새미경건설 서울대학교 서울화해 서인조경 선산C.C. 성균관대 성산종합개발 성우경경주식회사 성원나무병원
세계무역 세림조경 세븐힐스C.C. 세양조경 세원조경 세원조경개발 솔임업조경 수성건설 수프루 순천대학교 스카이밸리C.C. 승진조경
시그너스C.C. 시민조경 신안C.C. 신원C.C. 신원대(주) 싼밸리C.C. 아도니스C.C. 아시안C.C. 아시아드C.C. 알록에마임 양지녹지원
양지파인C.C. 양평군청 양평조경개발 에바다 에버랜드 에이스조경 예코그린 엘리시안C.C. 엘림조경 영서조경 영양읍사무소 영림식물원
예림조경건설 예산수림조경 예원개발 오원하이엔지 오림원조경건설 오산화훼조경 오코밸리C.C. 용원C.C. 우석대학교 울산C.C. 웅지종합건설
원그린 원통건설 원화조경 은아종합건설 의림건설 이애스리조트 이포C.C. 인천동무공원사업소 일신조경 자연농원 장원조경 전주수림조경
정림조경 제천농원 제일녹화 제일식물원 조경모데 죽곡동사무소 중부C.C. 중앙조경 중앙화훼중요 중앙C.C. 중흥건설 지산원 진안군청
진양종합건설 진주C.C. 진천농업기술센터 진흥화훼센터 청원기술센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천안대학교 청남조경 청산조경건설 청솔조경
청암개발 청원군기술센터 청주대학교 초우 초원조경 춘천C.C. 캐슬렉스C.C. 크라운C.C. 대성녹화 대안군청 태원C.C. 테마조경 테크노그린
토탈그린 파크밸리C.C. 팔월C.C. 푸른세상 푸른조경 한경대 한국조경 한미프로그 한발조경 한성대 한스조경 한신조경 한울상사 한울목요장
한원C.C. 한일C.C. 한화실업C.C. 허브라 허브플러스조경 형곡조경 황금조경 효송종합개발 홍산조경